

# “책을 읽는 사회가 되도록”

김형석

전연세대교수·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회장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책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라는 말이 예사로워졌다.

입시준비를 위해 참고서를 읽고 과외공부를 할 시간도 없는데, 독서가 무슨 필요가 있는냐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가면 또 어떻게 되는가. 시험을 치르고 학점을 따기 위해 교재나 읽고 노트나 읽으면 되는데, 시험이나 학점과 관계가 없는 독서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실리적 공부를 한다.

요사이 대학 학부 때부터 국가고시나 입사준비 공부를 하고, 시키는 실정이다.

이런 식의 학교교육을 계속시키다 보니 교육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독서가 소외당할 뿐 아니라, 생각이 깊고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탄생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제작년의 일이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대학생들의 반미감정을 연구하고 제주도 해녀들의 생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그 성과가 지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데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유능한 잠재성을 인정받고 싶어하였다.

그 학생의 이야기다. 이번 학기에는 한 선생이 책 7권을 선정해 주고 그 중에서 4권을 골라 읽으라는 숙제를 내주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친구약 성경의 일부도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내가 잠시 머물렀던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한 과목을 신청해서 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2천페이지 정도의 독서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읽지 않으면 학점을 얻을 수가 없는 제도였다. 중요한 것은 강의보다도 독서인 것이다.

내가 옛날 일본에서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들은 강의를 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해 주었다. 그 가운데 2, 3권은 그 강의를 위해 내가 읽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결강은 하더라도 책을 읽지 않고서는 그 과목을 통과할 수가 없다. 어떤 교수가 교재(책)에 있는 그대로를 강의한다면 학생들의 결강은 보통이었다. 그 책만 읽으면 되는 것이었다. 다만 교수의 강의를 듣지 못하면 보충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강의에 참석하는 풍토였다.

그러기 때문에 인문·사회분야의 학생들은 자연히 애서가가 되며 장서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명한 교수의 저서가 약속한 날짜에 서점에 나오게 되면 서점에 먼저 달려 사가지고 학교로 나가는 순서가 보통이었다. 그 당시는 전시여서 책 부수가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있는가 함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와 비례되는 평가를 받는 것이었다.

그런 학습과 교육의 결과가 대학을 나온 후에도 독서를 계속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독서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높여주어 오늘의 선진국가를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교육제도와 사회여건이 바뀌면 우리도 책을 읽게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머물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제도의 개선에 참여하면서도 우리들 자신이 잃어버린 독서생활에 성의와 열성을 갖고 참여해야 하겠다. 그 결과로 우리들의 생활과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그 발전적인 변화를 우리 주변에서 확대시켜가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겠다.

특히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 그 책임있는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사회분위기와 생활의 풍토가 지성적이며 물질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와 균형잡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수준만큼의 정치와 경제수준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상식적 기본원리를 망각하지 않을 정도의 독서문화가 결실을 맺지 않으면 사회 모든 면의 후진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뉴스 2	고양시민들 “출판단지 유치” 서명운동·외
표지인물 4	보편적 인간완성 위한 구도적 삶의 전범 — 하응백 「늘푸른 소나무」 완간한 김원일씨
초점 6	도서관 활성화 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도서관주간 맞아 각종 행사 활발...장기적 처방 세워야
인터뷰 7	국립중앙도서관 이경문 신임관장
연중기획 8	한과 허무의식 통한 식민지정서 정화 — 오세영 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⑤ - 김소월의 「진달래꽃」
출판화제 10	한국학 쟁점 다룬 책 잇달아 선보인다 해당분야 논의 수준 한눈에 파악케 해
자료집 11	정종진 지음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
출판화제 12	금역의 장막 벗는 한국의 군과 군부
13	경제민주화시대 재벌의 위상과 역할
출판가화제 14	편집영역서 자리굳힌 만만찮은 우먼파워
15	출판사 영업직에 여성인력 본격 진출한다
16	출판계에도 재택근무제 바람 분다
서평 18	김수행 「정치경제학 특강」 — 조영진 김영한 외 「불평등사상의 연구」 — 황경식
19	이진우 「탈이데올로기시대의 정치철학」 — 남경희
20	김영화 「한국의 교육불평등」 — 최영표 자크 아탈리 「21세기의 승자」 — 양원근
21	앤더슨 「절대주의 국가의 역사」 — 광차섭 임동현 「행복한 이방인」 — 박덕규
확대서평 22	공들여 펴낸 역저에서 느끼는 아쉬움 — 민형원 김유동 지음 「아도르노사상」을 읽고
화제의 책 23	연표처럼 정리한 자료중심의 현대미술사 장루이 페리에 「20세기 미술의 모험」
이 책 그 사람 24	「측자파자」 낸 신유승씨 「달맞이꽃에 대한 명상」 낸 최승호씨 25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낸 장춘현씨 「한국의 성」 낸 윤형노씨
에세이 26	생명으로 즐지어 나오는 사랑의 실체 — 정진규 내 문학의 세 꼭지점, 체험과 책읽기와 시쓰기
28	독자서평
30	화제의 신간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